

3. IMF체제 이후 경제 현안에 대한 가계 심리 변화

- (가장 심각한 경제 현안) IMF체제 이후 일반 가계는 '물가와 '실업' 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실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실업·파산에 대한 위기감) 이를 반영하여 최근 조사 결과일수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업과 파산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정책 과제) 따라서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실업과 생활 보장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가장 심각한 경제 현안) 97년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 가계는 '물가와 '실업'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34%의 응답자가 '실업'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과거 두 번의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물가'는 응답률이 32.0%로 낮아져, 최근으로 올수록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조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률이 16.7%로 크게 높아짐
 - '금융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실업'과 '물가'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가장 심각한 경제 현안>

	97년 12월	98년 3월	98년 6월
실업	24.9%	27.8%	34.1%
물가	47.3%	47.0%	32.0%
부동산 경기 침체	6.8%	7.3%	16.7%
금융 불안	17.8%	16.1%	16.4%
기타	3.2%	1.7%	0.7%

- (실업·파산에 대한 위기감) 실업과 파산에 대한 위기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실업과 파산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거나 이미 발생했다는 응답이 25.5%에 이르고 있음(지난 3월 21.1%, 97년 12월 12.3%)
 - 저소득층의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대한 가운데 소득계층별 격차가 확

- 대된 것으로 나타남(70만원 이하인 가계의 응답률 60% 이상)
- 연령별로는 휴·폐업, 파산 및 실업 중대를 반영하여 연령층이 높을 수록 위기감이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실업·파산에 대한 위기감>

소득 계층별	97년 12월	98년 3월	98년 6월
전 체	12.3%	21.1%	25.5%
70만원 이하	25.0%	55.1%	61.1%
71-100만원	11.6%	27.9%	28.0%
101-150만원	11.6%	17.0%	22.0%
151-200만원	10.4%	11.4%	13.4%
201-300만원	10.2%	10.7%	13.5%
301만원 이상	13.6%	8.5%	8.2%

- (지출 축소 항목) 가계 지출 가운데 축소할 항목으로는 '외식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주요한 지출 축소 대상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레저/문화비', '의류'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한편 '소비를 더 이상 줄일 여지가 없다'는 응답률도 매우 높게 나타남
- 특히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이하인 가계의 경우 더 이상 소비를 줄일 수 없다는 응답이 절반(47.2%)에 육박하고 있어 심각한 생활비 압박을 대변

<지출 축소 항목>

97년 12월		98년 3월		98년 6월	
외식비	47.4%	의류	25.6%	외식비	37.8%
레저/문화	21.3%	외식비	25.2%	레저/문화비	26.1%
의류	20.7%	가족들 용돈	24.9%	의류	20.9%
내구재	18.3%	레저/문화비	18.9%	가족들 용돈	18.1%
추가 축소 불가	17.6%	추가 축소 불가	24.9%	추가 축소 불가	23.3%

- (여유 자금 운용) 여유 자금 운용 형태에 있어서는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은행 예금'이 압도적인 선호도를 나타냄
- 반면 채권/신탁에 대한 선호도는 98년 3월 조사에서 상승(23.4%)했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다시 크게 하락(8.8%)함
- 이는 제 2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신탁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반영하여 주식은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선호도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유 자금 운용>

97년 12월		98년 3월		98년 6월	
은행 예금	79.6%	은행 예금	88.3%	은행 예금	84.2%
주택 매입	28.3%	채권/신탁	23.4%	현금 보유	22.7%
기타 부동산	26.8%	현금 보유	19.6%	기타 부동산	22.7%
현금 보유	21.2%	기타 부동산	18.3%	주택 매입	15.1%
채권/신탁	9.3%	주택 매입	12.8%	채권/신탁	8.8%
주식	7.3%	주식	4.4%	주식	4.1%

- (부동산 가격 전망)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침체를 예상하는 응답률이 더욱 높아짐

- '침체 장기화(44.6%)' 또는 '지속적인 하락(21.4%)'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의 응답률이 총 66.0%로 나타나 지난 3월 조사의 59.2%보다 높아졌음
- 반면, '조기에 재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31.3%→27.7%)은 감소함

- (정책 과제) 국민생활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 및 생활 대책인 것으로 판단됨

- 일반가계가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최근 '실업' 문제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업과 파산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높아짐
- 또한 '물가 문제'를 지적한 응답률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만큼, 향후 간접세 및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주는 생활 압박 효과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실업 및 생활보장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 태 열 tylee@hri.co.kr ☎724-4012, 민 주 홍 jhmin@hri.co.kr ☎724-4014)

< 설문 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기혼자 약 1,000명 (98년 6월: 991명)
- 조사 방법 :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 설문
- 조사 목적 : 일반 가계의 실업, 소비 등 당면 문제에 대한 심리 변화 조사
- 조사 시기 : 98년 6월 10~11일 (같은 조사를 97년 12월, 98년 3월에도 실시)